

한국어와 중국 제어의 경어법 문법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

박성일**

— < 次 例 > —

- I. 들어가는 말
- II. 언어유형론과 문법화 연구
- III.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및 문법화
- IV.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한국어 경어법은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을 반영한다. 여기서 ‘경어법’이란 용어가 말해 주듯이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규범적이고 문법적인 범주이다. 한국어의 ‘경어법’과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경어(敬語) 혹은 경겸사(敬謙辭), 공경어(恭敬語), 예의어(禮貌語) 등 ‘법’을 붙이지 않은 문법적 성격이 약한 용어가 사용되고 실현방법에 있어서도 어휘나 구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유형론적으로 정밀한 문법체계를 갖고 있는 경어법 언어(honorific

*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8019803)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조교수

<http://dx.doi.org/10.17313/jkorle.2015.36.51>

language)라 할 만한 문법범주로 되어있고 권재일(1991), 손호민(2008) 등에서 이미 한국어의 경어법이 언어유형론적 특징으로 거론되었지만 이 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제어의 경어법을 연구하는 것은 계통론 연구와 밀접히 연결되고 한국어의 문법 연구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고도로 문법화 된 문법범주로서의 한국어 경어법의 특징들은 문법화의 층위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므로 기타 언어의 문법화 연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기댄 결과물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경어법교육 연구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경어법을 논제로 하여, 중국의 민족어들 중에서 현존하는 경어법의 실현방법들을 공시적 관점에서 조사하고 한국어와의 비교·귀납 정리를 통해 각 언어에서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언어유형론과 문법화 연구

1. 언어유형론 연구

언어유형론(typology)은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들을 비교하여 인간 언어에서 관찰되는 구조적인 차이와 패턴을 연구하고 분류하며 나아가 언어보편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Croft 1990: 1-4). 또한 언어유형론의 연구는 언어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언어의 보편성을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는 한 개별어의 특징을 보편

성에 기대어 규명하는 연구이기도 하다(권재일, 1991: 51).

한국에서 언어유형론 연구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이에 대해 고영근(2009: 149)은 “지나간 60여 년 동안 한국의 언어학계에서 구조언어학과 생성언어학에 몰두하는 나머지 유형론적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어의 유형론 연구에서 주목되는 논의로는 목정수(2004, 2013), 손호민(2008), 김현권(2008), 고영근(2009), 최형용(2009) 등의 이론적 연구가 있고, 이 외 한국어의 음운론과 발음에 대해 연구한 권경근(2008), 허용(2011)의 연구; 형용사와 동사에 대해 연구한 김기혁(2007), 목정수(2009)의 연구; 인칭대명사의 유형론적 연구로 박진호(2007), 송경안(2010), 목정수(2014); 문장론의 유형론적 연구로는 권재일(2002), 김기혁(2006), 이선웅(2011); 한국어 어순에 대한 연구로는 임홍빈(2007)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언어유형론 연구는 중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민족어와 중국어 방언 자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축적했다.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고 80여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티베트어족,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남방어족, 인도-유럽어족과 같이 5개 어족이 분포되어 있다.¹⁾ 중국의 민족어에 대해서 20세기 3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1980년대에는 수년에 걸쳐 소수민족언어에 대해 각 언어 별로 조사하고 편찬한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 57권을 출판했고, 2009년에는 6권의 합본으로 된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丛书』가 출판되었다. 이 외 2007년에 孙宏开 등이 출간한 『中国的语言』도 중국어를 포함하여 129개 민족어들을 비교적

1) 여기서 80여 개라고 하는 것은 『중국대백과전서』에 기술되어 있는 표현이고, 연구자들에 따라 120여 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이론 연구에서는 沈家煊(2009), 刘丹青(2003, 2008, 2012)와 戴庆夏(2008, 2014)의 연구가 주목된다.

언어유형론 논제의 선정에 있어서 유형 비교의 매개변수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보편성을 갖는 범주로서 이 범주가 각각의 언어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통사 수단 보다는 의미기능범주가 비교의 출발이 된다. 의미기능 범주는 어느 언어이든 표현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표현되는 형태-통사 수단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유단청, 2011: 605).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대화참여자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언어적 현상은 각 언어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경어법은 의미기능범주로서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유형론적 관점의 경어법 연구는 주요 논제로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언어유형론의 논제로서 경어법의 중요성에 대해 엄익상(2003: 177), 손호민(2008: 81), 고영근(2009: 161) 등에서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 연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목정수(2014)에서는 인국어의 여러 문법 현상들을 한국어의 경어법 관련 요소들 간의 호응관계, 동사 어미에 따른 인칭 제약, 인칭대명사와 경어법 관련 어미와의 상관성 등과 결부 지으면서 한국어의 경어법의 문제가 인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어법이 발달하였다는 것이 특정 인칭 어미의 패러다임이 없이도 인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한국어의 인칭과 경어법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 외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교육 연구에서 유형론 관점을 도입한 박성일(2013)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가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가 높은 언어임을 지적하면서 언어 유형의 차이로 인한 경어법 학습의 곤란도를 낮추기 위해 보편성을 강조하고 특수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어의 경

어법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2. 문법화와 문법법주의 실현방법

현대 문법화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Jerzy Kurylowicz의 문법화 이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²⁾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Kurylowicz, 1975[1965]: 52)

문법화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³⁾

- a. 어휘적인 표현 > 문법적 표현, 덜 문법적 기능 > 더 문법적 기능
- b. 의미의 변화: 구체적 > 추상적 의미
- c. 형태의 구조: 통사적 구조(자립적으로 쓰임) > 형태적 구조(의존적으로 쓰임)

문법화는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현상들이며, 또한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이런 과정은 단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긴 세월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공존하는 현상이 생긴다. 즉 문법소들이 같은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지는 여

2) 이하 문법화 이론은 이상하(2006: 23)에서 인용함.

3) 그러나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가끔은 역문법화 현상도 있다. 예컨대, 현대에 와서 객체경어법 '-습-'의 소실과 같은 경어법 간소화 현상도 있다.

러 방법들이 공존하게 되고 문법범주로서의 경어법이 각 언어마다 그 실현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어법의 실현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문법범주 실현의 유형을 먼저 보기로 한다. 권재일(2012: 257)에서는 현대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분석하여 문법범주 실현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바 있다.⁴⁾

(1) 문법범주 실현방법의 유형

- a. 음운적 방법
- b. 어휘적 방법
- c. 파생적 방법
- d. 문법형태적 방법
- e. 통사적 방법

음운적 방법의 실현방법은 문장 끝 억양이 그 한 예로서 종결어미 '-어'가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내림억양은 서술법, 올림억양은 의문법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휘적 방법은 단어에 의해서 실현되는 방법이다. 단어의 구성 방식 상 어휘적 방법에는 단순 어근으로 구성된 단순어가 있고, 어근과 어근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다. 전자에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 특정한 동사로 실현되는 주체경어법과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등으로 실현하는 객체경어법이 있다. 후자에는 “귀교, 고견” 등 한자어 자립형태소에 의한 단어구성이 포함된다.

파생적 방법은 파생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방법으로서 ‘선생’에 대

4) 여기서 ‘문법범주’의 개념은 “문법형태소로 실현되는 관념뿐만 아니라, 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더라도, 그것이 문법관념의 실현이라면, 문법범주에 포함된다.”(권재일, 2012: 256)참고

하여 ‘-님’을 붙여 ‘선생-님’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문법형태적 방법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에 의해 실현되는 방법으로서 높임종결어미로 실현되는 상대경어법, 주체높임선어말어미 ‘-시-’에 의한 것, 주격조사 ‘-께서’가 실현되는 방법 등이다. 문법형태적 방법은 굴곡어의 경우는 굴곡적 방법 혹은 굴절적 방법이라 부르고 교착어의 경우는 교착적 방법이라 부르는데 굴곡어든 교착어이든 두루 부를 수 있는 것이 문법형태적 방법이며 줄여서 형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사적 방법은 둘 이상의 형태적 구성이 통합되어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하나의 문법관념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게 하-’에 의해 사동법이 실현되는 경우가 이런 방법이다.

Ⅲ.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및 문법화

1. 한국어 경어법의 실현방법

한국어 경어법은 일차적으로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상대경어법으로 분석 된다.⁵⁾예컨대,

- (2) ㄱ.아버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ㄴ.나는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ㄷ.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5) 한국어의 경어법은 주로 권재일(1991, 2012), 민현식·왕문용(1995), 고영근·구본관(2008), 구본관 외(2015)를 참고했고, 경어법 실현방법의 유형은 권재일(2012)를 따름.

위의 예문(2ㄱ) 주체경어법은 명사(‘진지’는 ‘밥’의 높임말) 그리고 동사(‘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말)의 어휘적 대립과 같은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고, 높임접미사(‘-님’)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고 선어말어미(‘-시-’)와 주격조사(‘-께서’)에 의한 형태적 방법으로도 실현된다. 예문(2ㄴ)의 객체경어법은 동사(‘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의 어휘적 대립에 의한 어휘적 방법과 부사격조사(‘-께’)에 의한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이 외 접미사(‘-님’)에 의한 객체높임도 가능하다. 예문(2ㄷ)의 상대경어법은 명사(‘말씀’은 ‘말’의 높임말)의 어휘적 대립에 의한 어휘적 방법, 높임의 접미사(‘-님’)에 의한 파생적 방법, 높임종결어미(해요체, 합쇼체 등)에 의한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어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체경어법]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대명사 및 주체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형태적: 선어말어미(‘-시-’), 주격조사(‘-께서’)에 의하여

[객체경어법]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대명사 및 객체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의 접미사(‘-님’)에 의하여

형태적: 부사격조사(‘-께’)에 의하여

[상대경어법]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대명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 등)에 의하여

형태적: 높임종결어미(해요체, 합쇼체 등)에 의하여

경어법이 실현되는 방법에 따라 한국어의 경어법을 어휘적, 파생

적, 형태적 방법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대명사 및 높임동사에 의하여
-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 형태적: 선어말어미(‘-시-’),
 주격조사(‘께서’), 부사격격조사(‘께’),
 높임종결어미(해요체, 합쇼체 등)에 의하여

2. 기타 언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제어 중에서 중국-티베트어족의 7개 언어, 알타이어족의 7개 언어, 이 외 한국어를 포함하여 15개 언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⁶⁾ 이들 언어들의 계통적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언어의 분포

중국-티베트어족	중국어파	중국어(한어)
	티베트어파	티베트어, 리수어, 라후어, 나시어, 바이어
	등타이어파	거로어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리아
	몽골어파	몽골어
	만주통구스어파	시버어, 어웁키어
기타		한국어

6) 이 외에도 더 많은 언어에서 경어법의 사용이 발견되지만 본고의 연구 목적은 공식적 관계 속에서 경어법 실현방법의 문법화 정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므로 경어법의 중복기술을 피하고 고찰 대상 어족의 형평성과 기술의 명료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15개 언어만 주요 논의 대상으로 했다.

언어의 구조적 특징에 근거하여 볼 때 위의 표에서 중국-티베트 어족의 언어들은 고립어에 속하고 알타이어족의 언어는 교착어에 속한다. 여기서 고립어는 대체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거의 없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 관계와 의미가 어순에 의해서 표시되는 특징이 있고, 교착어는 문법 관계가 어근에 결합하는 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⁷⁾

먼저, 중국-티베트어족 언어의 경어법 실현방법을 보기로 한다.⁸⁾

중국어(한어)의 경어법은 주로 높임대명사, 높임명사, 높임동사와 같이 어휘적 대립에 의한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예컨대, ‘你(너) - 您(당신)’, ‘爸爸(아버지)-父亲(부친)’, ‘死(죽다)-去世(세상 뜨다)’, ‘吃饭(밥 먹다)-用餐(진지를 드시다)’ 등이 있다. 이외 ‘老+성’와 같이 성씨 앞에 접두사 ‘老-’를 붙여 친근감이나 존경을 나타내는 파생적 방법도 있다. 그러나 중국어(한어)에서 형태적 방법의 경어법은 발견되지 않는다.⁹⁾

티베트어에서 경어법은 사용범위가 넓고 구어와 문어에 모두 사

7) 그러나 이런 특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언어 간 융합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된다. 고립어로 분류된 언어에서 접사에 의한 굴절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같은 언어라고 해도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고 고립어라 불리는 라후어의 사동법에서 굴절식, 분석식, 굴절 및 분석식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발견되고, 라후어의 대명사의 복수 형식에서 라후납 방언은 대명사 원형 뒤에 ‘들’에 해당하는 [xur] 붙여 $\eta a^{31}(\text{나})+xur^1=> \eta a^{31}xur^{33}(\text{우리})$, $no^{31}(\text{너})+xur^1=> no^{31}xur^{33}(\text{너희들})$ 와 같이 표현되지만 라후시 방언에서는 $\eta ur^{31}(\text{우리})$ 와 같은 모음의 굴절 방식과 $no^{31}(\text{너})-\eta i^{31}(\text{너희들})$ 와 같이 어휘적 대립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라후어의 예문은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664)를 참고함.

8) 각 언어별 기술은 주로 孙宏开·胡增益·黄行(2007)과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제1권-6권)를 참고했고 이 외 각 언어 별 단행본, 논문 및 조사 내용에 기초함.

9) 동사 앞에 붙어 ‘请+V’형식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请(qing)’을 문법형태소로 볼 것인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 외로 한다.

용된다.¹⁰⁾ 扎西草(2013: 64)에 의하면 『티베트어 경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3445개의 높임어휘 중에서 명사는 1650개로서 63%를 차지하고, 동사 533개로 20.3%, 형용사 273개로 10.4%, 대명사는 123로 4.8%를 차지하며 이 외 부사, 조동사, 감탄사에도 높임어휘가 있으며 주로 어휘적 방법과 파생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어휘적 방법은 $ch\theta^{253}$ (너) - che^{253} (당신), kho^{53} (그) - $kh\theta^{55}$ (그분), ko^{12} (‘머리’)- u^{53} (‘머리’의 높임), ta^{53} (보다)- si^{12} (보시다)와 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여 안높임과 높임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외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반 어휘소를 높임 어휘소로 바꾸어 높임어휘를 구성하는 어휘적 방법이 있다. 예컨대, 일반 명사인 $kha^{55}la^{253}$ (밥)은 kha^{55} (입)+ la^{253} (손)가 결합하여 구성된 일반 합성어이고, 이것의 높임어휘로 사용되는 $\epsilon\epsilon^{11}la^{253}$ (진지)는 kha^{55} (입) 대신 $\epsilon\epsilon^{11}$ (‘입’의 높임말)로 바꾸어 높임어휘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합성어의 결합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분리했을 경우 ‘진지’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 명사에 u^{53} (머리), $tcha^{253}$ (손), $\epsilon\epsilon^1$ (입)과 같은 높임 의미의 자립문법소를 추가하여 높임명사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휘적 방법도 있다. 예컨대, $t\check{s}a^{53}$ (머리카락)에 u^{53} (‘머리’의 높임말)를 추가하여 높임어휘 $u^{55}t\check{s}a^{53}$ (‘머리카락’의 높임말)이 된다. 파생적 방법은 주로 $na\check{g}^{55}$ (하시다) 등과 같은 후치사형 파생형태소에 의해 실현된다. 索南坚赞(1990: 99-100)에 의하면 $tehe^{132}$ (하다)의 높임 형태인 $na\check{g}^{55}$ (하시다)는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높임의 기능어로서 명사, 동사 등의 뒤에 두루 붙어 무수히 많은 새로운 높임동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대,

10) 티베트어는 주로 孙宏开·胡增益·黄行(2007),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제 1권), 索南坚赞(1990), 扎西草(2013), 金鹏编著(1983), 林连云编著(1985), 曹晓燕(1994)를 참고함.

일반 동사 tsu⁵²(과중하다)의 뒤에 naŋ⁵⁵(하시다)를 붙여 tsu⁵²naŋ⁵⁵(과중하시다)가 된다. 이런 형태소는 조어 능력이 뛰어나서 높임 어휘의 어근에 추가로 붙을 수도 있고 일반 어휘의 뒤에 붙어 높임 동사로 만들기도 한다.

리수어는 호칭어 명사어근 앞에 a⁴⁴와 a⁵⁵와 같은 접두사를 붙여 파생적 방법으로 존경을 표시한다. 주로 손윗사람이나 같은 향렬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친족에게 사용된다. 예컨대, a⁴⁴pa⁴⁴ (조부님), a⁴⁴ma⁴⁴(어머님), a⁵⁵ʒi⁴²(형님) 등이다.

라후어에는 명령, 공손, 존경의 어기사로 me³¹(-십시오, -세요)가 있어 문장의 끝이나 동사 뒤에 붙어 높임을 나타낸다.¹¹⁾¹²⁾ 예컨대,

(3) te⁵³khui³³ qɔ²¹ mi³³ me³¹!

조금 더 앉다 세요

(조금 더 앉으십시오!)

孙宏开·胡增益·黄行(2007:302)

위의 예문(3)에서 라후어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동어족 언어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명사, 명사, 동사의 어휘적 대립에 의한 경어법 실현방법이 아니라 문장의 끝머리에 오는 어기사에 의해 경어법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타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¹³⁾

11) 라후어는 孙宏开·胡增益·黄行(2007),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제2권), 李春风(2012, 2014), 常妘恩主编(1986), 张蓉兰(1987,1994), 陈丽湘(2009)를 참고함.

12) me³¹와 같이 문장의 맨 뒤에 붙어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들에 대해 李春风(2012)은 어기사로 기술하고, 张蓉兰(1987), 孙宏开외(2007),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제2권)에서는 어기조사로, 이복형(2000)은 후치사로 기술했다. 우리는 어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3) 라후어는 어기사가 풍부한 언어이다. 라후어의 어기사들로는 서술형에 ve³³, jo³¹, ve³³jo³¹, a³¹, xe³⁵, (ve³³)jo³¹ɔ³³, la⁵³, ɔ³¹, ve³³la⁵³, o³³가 있고, 명령, 요청형에 me³¹,

라후어에서 $m\epsilon^{31}$ 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기사 중의 하나로서 위의 예(3)처럼 직접 동사 뒤에 붙어 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형태적 방법으로서의 실현여부가 그다지 명료해 보이지 않지만. $m\epsilon^{31}$ 의 경어법 실현방법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동을 나타내는 $\tau\iota^{33}m\epsilon^{31}$ (~게 하십시오)와 금지를 나타내는 $l\omicron^{31}m\epsilon^{31}$ (마십시오)와 같이 기타 어기사나 조사가 붙어 사용되는 현상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사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j\omicron^{53}xu^{33} \quad th\alpha^{31} \quad \gamma\omicron^{53}l\omicron^{35} \quad t\epsilon a^{53} \quad \tau\iota^{33}m\epsilon^{31}$.

그들 (목적격조사) 먼저 먹다 - 게 하세요.

(그들더러 먼저 먹게 하세요)

李春风(2012: 189)

위의 예(4)에서 $m\epsilon^{31}$ 는 $\tau\iota^{33}$ (-게 하-)와 같이 쓰여 $\tau\iota^{33}m\epsilon^{31}$ (~게 하십시오)가 되었으며 두 단어사이의 결합정도가 긴밀하다. 자동사 뒤에 붙어서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tau\iota^{33}$ (-게 하-)는 $\tau\iota^{33}$ (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기원되었고, 동사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자동사 뒤에서 사동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문법화 현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bu^{31} (쓰다)- $bu^{31}\tau\iota^{33}$ (쓰게 하다)와 같이 동사 뒤에 붙어 긴밀한 결합관계가 형성되면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tau\iota^{33}$ 는

$j\omicron^{31}$, a^{33} , pi^{53} , la^{31} 이고, 감탄형에 $l\omicron^{33}$, $m\epsilon^{31}$, a^{31} ; 의문형에는 la^{53} , le^{33} , le^{33} (때론 le^{33} , xe^{35} 로 읽기도 한다); 전달형으로 te^{53} 가 있다. 李春风(2012: 240)에 의하면 이들 어기사들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들로서 양태범주에 속한다. 라후어 어기사의 특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모두 문장의 어말에 위치하고 술어동사와 인접하며, 2) 대체로 진술, 명령, 의문, 감탄, 전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에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하위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며, 3) 일부 명령형 어기사에는 인칭과 수에 따른 형태변화가 있고, 4) 서로 다른 어기사들이 함께 붙어 사용될 수 있으며, 5) 어떤 어기사들은 체조사(體助詞)들과 함께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결합정도가 긴밀하여 마치 하나의 단어와 같다.

$m\epsilon^{31}$ 와 긴밀한 결합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앞의 자동사와도 긴밀한 결합관계가 형성되면서 여기서 $m\epsilon^{31}$ 와 결합 가능한 사동의미의 형태소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는 교착적 결합관계로 판단된다.

금지의미를 나타내는 $lo^{31}m\epsilon^{31}$ (마십시오)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예컨대,

(5) $li^{31}xe^{53}ja^{53}xu^{33}o^{33}$, $to^{53}ta^{53}jo^{33} lo^{31}m\epsilon^{31}$!

학생 여러분 말씀하다 마십시오

(학생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금지) 李春風(2012: 117)

위의 예(5)에서 서술형 어기사 o^{33} 의 변음형태인 lo^{31} 가 $m\epsilon^{31}$ 와 결합하여 금지의미의 $lo^{31}m\epsilon^{31}$ (마십시오)를 형성하는데 둘 사이의 결합관계가 긴밀하여 $lo^{31}m\epsilon^{31}$ (마십시오)를 교착형태적 결합관계로 판단된다.

이 외 라후어에는 일부 동사에서 모음의 긴장정도의 변화를 통해 명령 의미를 나타내는 굴절형태적 방법이 존재하고, 사동법의 일부도 굴절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李春風(2012: 487), 陈丽湘(2009) 등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라후어에 나타나는 형태적 문법수단이 소멸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맥락으로 보면 위의 어기사 $m\epsilon^{31}$ 의 경우도 원래는 분명했던 형태적 방법이 차츰 어휘적 방법으로 바뀌는 역문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라후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깊이하는 가운데 추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나시어는 아랫사람, 동년배, 연장자에게 인칭대명사로 안높임과 높임을 나타낸다. 동년배에게 n^{33} (너)- ua^{55} (당신)의 구분으로, 2인칭

14) 동사 앞에 붙어 '안/못'과 같은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ta^{53} 가 따로 있다.

연장자에게는 ηv^{55} (어르신)과 복수대명사 $\eta v^{55}x\alpha^{33}$ (ηgw^{21}) (어르신들)을 사용하여 높임을 표시하고, 3인칭 연장자에게 $the^{21}gv^{33}ma^5$ (어르신)과 복수대명사 $the^{21}gv^{33}ma^5x\alpha^{33}$ (어르신들)이 사용된다. 즉, 어휘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바이어에는 no^{31} (너)- ji^{55} (당신), nu^{55} (너의)- na^{55} (당신들의)와 같이 2인칭단수대명사에 통칭과 존칭 구분이 있으며 이것은 어휘의 대립에 의한 경어법 실현방법이다.

거로어에서는 ‘할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명사 tau^{55} 가 파생형태소 tau^{55} (-님)로 되면서 존경받을 사람 혹은 사물의 어휘 앞에 붙어 높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kau^{55} (증조부)에 tau^{55} (-님)이 붙어 $tau^{55}kau^{55}$ (증조부님)이 되고 이 외 $tau^{55}sai^{55}$ (숙부님), $tau^{55}vai^{13}$ (고모부님), $tau^{55}mp\alpha^{44}$ (조상님), $tau^{55}pe^{31}$ (부처님), $tau^{55}ts'b^{44}$ (사돈님) 등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다.¹⁵⁾

다음 계속해서 알타이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보기로 한다.

위그르어는 언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교착어이며 언어 계통으로는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한 언어이다.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경어법은 2인칭대명사로서 sen (너)- siz (당신), $siler$ (너희들)- $sizler$ (당신들)와 같이 안높임과 높임 어휘의 대립으로 이뤄진다. 이 외 형태적 방법으로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 실현되는데 인칭범주와 밀접히 연관된다. 우선 명사를 높이는 형태적 방법에는 명사의 종속성인칭범주와 명사의 술어성인칭범주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명사의 어간에 종속성인칭의 문법형태소를 추가하여 사물에 대한 종속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장의 주어가 인칭대명사일 때 명사성 술어는 주어와 인칭, 수 방면에서 서로 일치해

15)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706),孙宏开·胡增益·黄行(2007: 1378),를 참고함.

야 하므로 술어성인칭의 문법형태소를 추가하여 표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선 명사의 종속성인칭으로 실현된 경어법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 (6) ㄱ. qiz | 딸 | (명사) |
| ㄴ. qiz-iŋ | 너의 딸 | (명사의 종속성인칭 안높임) |
| ㄷ. qiz-iŋiz | 당신의 딸 | (명사의 종속성인칭 높임) |

위의 예(6)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의 종속성인칭 문법형태소인 -iŋiz를 붙여 제2인칭 높임을 실현했고,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ŋiz를 붙여 경어법이 실현된다. 명사의 어간이 제1, 제2인칭 종속성 표지가 붙을 때, 앞의 소유격 인칭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 (7) sizniŋ qiz-iŋiz -> qiziŋiz 당신의 딸
 당신 딸(당신의)

다음은 명사의 술어성인칭으로 실현된 예를 보기로 한다.

- (8) opukutŋi-siz. 당신은 학생입니다.
 학생 당신...입니다

동사의 높임은 동사의 어간에 제2인칭 높임의 문법형태소인 -ŋ, -iŋ, -uŋ, -yŋ을 붙여서 명령형을 이룬다. 예컨대,

- | | | |
|------------|----------|---------|
| (9) ㄱ. oqu | 너 읽어라 | (일반 표현) |
| ㄴ. oqu-ŋ | 당신 읽으십시오 | (높임 표현) |

카자흐어의 경어법 실현방법은 위그르어와 비슷하다.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경어법은 제2인칭대명사에 sen(너)-siz(당신)와 같이 안높임과 높임의 어휘적 대립으로 이뤄진다. 이 외 재귀대명사도 이런 구분이 있다.

카자흐어에서 경어법은 명사와 동사에 문법형태소를 추가하는 형태적 방법으로도 이뤄진다. 명사에는 명사의 종속성인칭 높임의 문법형태소인 -ŋiz, -ŋiz, -iŋiz, -iŋiz, -larŋiz, -leriŋiz, -darŋiz, -deriŋiz, -tarŋiz, -teriŋiz 등을 붙여서 실현된다. 예컨대,

- (10) ㄱ. mal(가축) + iŋ → malŋ 너의 가축 (안높임)
 ㄴ. mal(가축) + iŋiz → malŋiz 당신의 가축 (높임)

또한 명사에 명사의 술어성인칭의 높임 문법형태소들인 -siz, -siz, sizdar, -sizder를 추가하여 형태적 방법의 경어법이 실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 (11) siz zumissī + siz → siz zumissīsiz
 당신(대) 노동자(명) 술어성인칭(형태소)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위의 예문(11)에서 소유격 인칭대명사인 siz(당신)는 생략하고 직접 'zumissīsiz'로 표현할 수도 있다.

동사의 명령식에서 경어법은 단수 높임 문법형태소인 -iŋiz, -iŋiz, -niŋiz, -ni와 복수 높임의 -iŋizdar, -iŋizder, -ŋizdar, -ŋizder와 같은 문법형태소를 추가하여 형태적 방법으로 이뤄진다. 예컨대,

- (12) ze + ŋizder → zeŋizder
 먹다(동) 여러분(존칭 복수) 여러분 잡수십시오.

키르키즈어의 경어법 실현방법도 대체로 카자흐어, 위그르어와 비슷하다. 어휘적 방법에는 sen(너)-siz(당신), siler(너희들)-sizder(당신들)와 같이 안높임과 높임이 대립되어 나타나는 어휘적 대립으로 실현되며 이 외 재귀대명사에도 어휘적 대립 구분이 있다.

형태적 방법으로는 명사에 종속성인칭 높임의 문법형태소인 əŋəz, -iŋiz, -uŋuz, -yŋyz, -ŋəz, -ŋiz, -ŋuz, -ŋyz와-əŋəzdar, -uŋuzdar, -yŋyzdər, -ŋəzdar, -ŋizder, -ŋuzdar, -ŋyzdər 등을 붙여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며 이 외 명사에 붙는 술어성인칭에도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가 있다. 또한 동사에 제2인칭 높임의 문법형태소인 -(ə)ŋəz, -(i)ŋiz, -(u)ŋuz, -(y)ŋyz, -(ə)ŋəzdar, -(i)ŋizder, -(u)ŋuzdar, -(y)ŋyzdər 등을 붙여 명령형을 이루어 실현된다. 이 외에도 서술형에서도 시제와 인칭의 구분에 따라 -səz/-siz/-suz/-syz(현재진행태 서술식), -səzdar/-sizder/-suzdar/-syzdər(현재장래태 서술식), -ŋəz/-ŋiz/-ŋuz/-ŋyz(과거태 서술식), -ŋəzdar/-ŋizder/-ŋuzdar/-ŋyzdər(조건태 서술식) 등 문법형태소를 붙여 경어법이 실현된다.

사라어에서는 부탁이나 완곡어기를 나타내는 명령문은 동사 어간 뒤에 문법형태소 -duku(doko)을 붙여 실현된다. 예컨대,

- (13) sen maŋa bər baŋnaduku
 너 나 좀 돕다
 (너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몽골어에서 경어법은 주로 2인칭단수대명사의 어휘적 대립에 의해 실현한다. 2인칭단수대명사에 평칭과 존칭의 구분이 있는데, 존칭은 다시 주격에 쓰는 taa(당신)과 기타 각 격에 쓰는 tan-(당신)으

로 구분된다.

시버어는 어휘적 방법으로 2인칭대명사 *ci*(너)-*bai* (당신), *so*(너희) -*bais*(너희들)의 대립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어웡키어는 어휘적 방법으로 2인칭대명사 *sii*(너)-*suu*(당신)의 구분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3. 정리

본 연구에서 15개 언어의 경어법 실현방법에 대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인칭대명사에 의한 경어법 실현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 언어를 제외한 대부분 언어에서 인칭대명사의 어휘적 대립에 의한 경어법이 실현되었고 특히 2인칭대명사에서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의 언어들은 인칭범주가 포함된 문법형태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태적 방법에 의한 경어법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유형론 관점의 경어법 실현방법에서 인칭범주가 주목받는다라는 점과 특히 알타이어족에서 인칭과 경어법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은 한국어에서도 인칭범주에 기반한 보다 더 심화된 경어법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을 어휘적 방법, 파생적 방법, 형태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실현방법		어휘적	파생적	형태적
어족과 언어				
중국-티베트어족	중국어(한어)	○	○	
	티베트어	○	○	
	리수어		○	
	라후어			○
	나시어	○		
	바이어	○		
	거로어	○		
알타이어족	위그르어	○		○
	카자흐어	○		○
	키르키즈어	○		○
	사라이어			○
	몽골어	○		
	시버어	○		
	어웁키어	○		
한국어		○	○	○

위의 표에서 우리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 언어들 중에서 라후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들은 주로 어휘적 혹은 파생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고 형태적 방법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유독 라후어가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어 중국-티베트어족의 기타 언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라후어는 경어법에서 뿐만 언어와 민족복장, 구전신화, 일부 풍속습관 등에서 주위의 기타 민족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며 북방민족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라후어를 포함하여 중국-티베트어족의 민족들이 대부분 중국의 서남부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후족이 북방민족의 특징이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안이다. 그러나 라후족의 역사와 민족이

동의 관점으로 그 설명이 용이해 진다. 라후족은 원래 중국 서북부 고원지대인 감숙, 칭해 일대에 거주하는 고대강인(古羌人)이었는데 춘추전국시기부터 북에서 남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중국 운남성 난창강지역 서남부에 거주하게 된다.¹⁶⁾ 따라서 라후어는 민족 집단이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와 인접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중국-티베트어족으로 편입되었지만 기존의 일부 특징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언어에서 형태적 방법이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¹⁷⁾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한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들은 주로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어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같은 알타이어족이라도 몽골어파와 만주-통구스어파에서는 형태적 방법의 경어법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튀르크어파의 언어들은 중국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몽골어파는 중국의 북부에 위치하며, 만주-통구스어파는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멀리 떨어진 튀르크어파의 경어법이 한국어와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이에 위치한 몽골어파와 만주-통구스어파의 경어법은 오히려 한국어와 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지리적인 연속체가 언어유형의 연속체와 합치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더 많은 언어적, 사회적 조사연구를 통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대한국어의 경어법은 형태적 방법이 주요 실현방법이면서도 어휘적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그 실현방법에 따라 보면 알타

16) 이것은 중국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으로서 张蓉兰(1994), 李春风(2012: 18)을 참고함.

17) 李春风(2012), 陈丽湘(2009), 张雨江(2007)을 참고함.

이어족의 튀르크어파 언어의 특징도 있고 중국-티베트어족의 특징도 있다. 즉, 현대한국어 경어법은 중국-티베트어족에서 주로 실현되는 어휘적 방법과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에서 주로 실현되는 형태적 방법을 두루 사용하는 언어이다. 경어법의 실현방법으로만 보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와 관계가 밀접한바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속한 언어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위치해 있고, 단일 민족으로 집거하면서 민족적 대이동의 역사가 없었으므로 고유의 알타이어족의 경어법 특징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중국 한자어의 영향을 받아 어휘적 방법에 의한 경어법도 함께 발달하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¹⁸⁾ 여기에 관해 또 다른 하나의 방증으로 현대한국어 경어법의 역문법화 현상을 들 수 있다.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습-’은 객체경어법을 실현하는 형태였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습-’의 기능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현대한국어에 이르면서 객체경어법 ‘-습-’은 소멸하였다(권재일, 2001: 66).¹⁹⁾ 현대한국어에서 한자 어휘의 강세와 더불어 경어법의 간소화 현상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문법화론의 관점에서 파생형태소는 더 어휘적이고 문법형태소는 더 문법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문법형태소가 파생형태소보다 더 문법화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위의 경어법 실현방법들을 문법화의 연속선 상에서 보면 덜 문법적인 데로부터 더 문법적인 정도로의 변화

18) 한국어의 계통에 대해 권재일(2013: 154)에서는 “알타이어족이 성립한다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비교언어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19) 허웅(1983: 460-1)에서는 이런 현상을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습-’으로 실현되는 객체경어법보다 더 중요한 상대경어법의 실현방법이 흐려지자 이것을 보완하고 보강하려는 의식에서 객체경어법을 회생시킨 현상으로 보았다.

는 다음과 같다.

(14) 문법성의 연속변이

어휘적 방법 > 파생적 방법 > 형태적 방법

공시적인 관점에서 위의 도식을 본다면 문법화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어휘적 방법이 가장 덜 문법화되어 있는 언어이고 오른쪽에 있는 문법형태적 방법은 가장 문법화되어 있으며, 오른쪽으로 근접할수록 더 문법화 된 언어이고, 이 선상에 있는 방법들은 서로 가까울수록 문법화 정도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언어에서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어에서 경어법 실현방법의 문법화 정도

어족	어휘적	파생적	형태적
한국어			한국어
중국-티베트어족	중국어(한어) 티베트어 나시어 바이어	거로어 리수어	라후어
알타이어족	몽골어 시버어 어웁키어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시리아
문법화 정도	←----->		높음
	낮음		

위의 표로부터 우리는 알타이어족의 문법화 정도가 대체로 높고 중국-티베트어족의 문법화 정도가 낮다는 점이 파악된다.

IV. 맺음말

언어유형론의 논제 선정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어나 서양 언어 중심의 논제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어의 특징이 반영된 경어법을 논제로 했다. 기존의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경어법이 주목받지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 경어법을 언어유형론의 일반이론을 설정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주제 선정에서의 성과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중국에 있는 중국어(한어), 티베트어, 리수어, 라후어, 나시어, 바이어, 거로어,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 몽골어, 시버어, 어웁키어 등 중국-티베트어족과 알타이어족 등 도합 15개 언어를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어법 실현방법을 조사하고 서로 비교했다.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 언어들 중에서 라후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들은 주로 어휘적 혹은 파생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고 형태적 방법으로는 실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한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들은 주로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어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같은 알타이어족이라든 몽골어파와 만주-통구스어파에서는 형태적 방법이 실현되지 않음도 확인된다. 현대한국어의 경어법은 형태적 방법이 주요 실현방법이면서도 어휘적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그 실현 방법에 따라 보면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 언어들 특징도 있고 중국-티베트어족의 특징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제어의 경어법 문법화 정도를 분석했다. 한국어 및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의 문

법화 정도가 높았고 중국-티베트어족의 문법화 정도가 보편적으로 낮다는 점이 파악된다.*

참고 문헌

- 고영근(2009), 「언어 유형론과 개별 언어의 문법 기술」, 『관악어문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47-189.
- 고영근(2010),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고영근(2013),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권경근(2008), 「음운론적 유형론과 한국어」, 『한글』 282, 한글학회, pp.35-59.
- 권재일(1988), 『문법 변화와 문법화』, 『방언학과 국어학』, 태학사.
- 권재일(1991), 「한국어 문법범주에 대한 언어유형론적인 연구」,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pp.51-74.
- 권재일(2001),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 권재일(2002), 「한국어 의문문의 실현 방법과 그 언어유형론적 특성」, 『한글』 257, 한글학회, pp.167-200.
- 권재일(2004), 「국어사 연구 방법과 외래 이론 수용」, 『국어학』 43, 국어학회, pp.385-405.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권재일(2013), 『세계 언어의 이모저모』, 박이정.
- 김기혁(2006), 「국어의 지정문과 존재문의 상관성」, 『한글』 271, 한글학회, pp.51-76.
- 김기혁(2007), 「국어형용사 서술문과 명사 서술문의 상관성」, 『이중언어학』 35,

* 이 논문은 2015. 11. 20. 투고되었으며, 2015. 11. 26. 심사가 시작되어 2015. 12. 4.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12. 13.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이중언어학회, pp.27-47.
- 김주원·권재일·고동호·김윤신·전순환(2008), 『사라져가는 알타이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 김현권(2008), 『유럽의 언어유형론 연구 현황과 시사점』, 『코키토』 6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213-239.
- 김태엽(2001), 『기능어의 문법화』, 『우리말글』 23, 우리말글학회, pp.1-24.
- 김창섭(2009),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목정수(2004), 『언어유형론의 비판적 고찰』, 『인문언어』 6, 국제언어인문학회, pp.185-211.
- 목정수(2009),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의 설정 문제』,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pp.387-418.
- 목정수(2013), 『한국어 보편과 특수 사이』, 태학사.
-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 목정수(2015), 『알타이제어의 구문 유형론적 친연성 연구 - 한국어의 타동구문을 중심으로-』, 『한글』 307, 한글학회, pp.75-124.
- 민현식(1984), 『개화기 국어의 경어법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25-149.
- 민현식·왕문용(1995),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박성일(2013), 『인칭 범주에 기반한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32,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pp.41-67.
- 박성일(2015),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경어법의 실현 방식』, 제36회 한중언어학회국제학술대회논문집.
-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국어학회, pp.115-147.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14), 『한국어교육학 사진』, 도서출판 하우.
- 손호민(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한글학회, pp.61-95.
- 송경안(2010), 『인칭 대명사 유형론의 몇 가지 논점에 대하여』, 『독일언어문학』 47, 한국독일언어학회, pp.65-89.
- 송재정 지음, 김기혁 역(2009), *Linguistic Typology-Morphology and Syntax*, 『인

- 어유형론-통사론과 형태론-』, 보고서.
- 심소희(2002), 「중국 동북지역의 언어특수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11, 이화중국어문학회, pp.267-298.
- 엄익상(2003), 「중국어와 한국어의 유형학적 비교」, 『중어중문학』 33, 중어중문학회, pp.153-184.
-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유단청·이지은(2012), 「언어유형론과 중국어 연구(상)」, 『중국어문논역총간』 30, 중국어문논역학회, pp.603-630.
- 유단청·이지은(2012), 「언어유형론과 중국어 연구(하)」, 『중국어문논역총간』 31, 중국어문논역학회, pp.309-331.
- 유단청 지음, 김기혁·손금추 옮김(2011), 『어순 유형과 개사 이론』, 보고서.
- 이기문(2003), 「한국어와 알타이 제어의 친족관계」, 『한국사시민강좌』 32, 일조각, pp.161-184.
- 이상하(2006),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선웅(2011), 「언어 유형론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연속동사구문」, 『언어연구』 27, 한국현대언어학회, pp.165-182.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현복(2000), 「라후어의 언어학적 연구-형태론 및 통사론적 분석-」, 『인문논총』 4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pp.71-94.
- 임흥빈(2007), 「어순에 관한 언어 유형적 접근과 한국어의 기본 어순」, 『서강인문논총』 2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53-120.
- 최형용(2009),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적 보편성과 특수성: 하스켈마트(2002)과 관련하여」, 『형태론』 11-2, 박이정, pp.425-438.
- 최형용(2013),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 허용(2008), 「한국어교육에서 대조언어학과 보편문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36, 이중언어학회, pp.1-24.
- 허용(2011), 「한국어 자음 체계의 유형적 보편성 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pp.331-351.
- 허용(2013), 『대조언어학』, 소통.

- 허용(1983),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 홍사만(2003), 「한·일어 대조 연구의 어제와 오늘」,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pp.-.
- 曹晓燕(1994), 「藏语敬语简论」, 『西藏研究』第3期.
- 常竑恩主编(1986), 『拉祜语简志』, 民族出版社.
- 道布编著(1983), 『蒙古语简志』, 民族出版社.
- 陈丽湘(2009), 「从语言接触看拉祜语的结构变异现象」, 『长春大学学报』第19卷第11期.
- 戴庆厦等编(2008), 『到田野去:语言学田野调查的方法与实践』, 民族出版社.
- 戴庆厦·汪锋(2014), 『语言类型学的基本方法与理论框架』, 商务印书馆.
- 戴庆厦·朱艳华 (2012), 「20年来汉藏语系的语言类型学研究」, 『语言文字学』, 第1期.
- 耿世民·李增祥编著(1985), 『哈萨克语简志』, 民族出版社.
- 和即仁·姜竹仪编著(1985), 『纳西语简志』, 民族出版社.
- 贺嘉善编著(1983), 『仡佬语简志』, 民族出版社.
- 胡增益·朝克编著(1986), 『鄂温克语简志』, 民族出版社.
- 胡振华编著(1986), 『柯尔克孜语简志』, 民族出版社.
- 金鹏编著(1983), 『藏语简志』, 民族出版社.
- 金有景(1988), 『拉祜语的紧元音』, 『民族语文』, 第3期.
- 李春风(2012), 『邦朵拉祜语参考语法』, 中央民族大学博士学位论文.
- 李春风2014, 「拉祜语动词使动态探析」, 『民族语文』, 第3期.
- 李红军(2012), 「临翔南美拉祜族迁徙史考析」, 『宝山学院学报』, 第4期.
- 李树兰·仲谦编著(1986), 『锡伯语简志』, 民族出版社.
- 刘丹青(2003), 『语序类型学与介词理论』, 商务印书馆.
- 刘丹青(2008), 『语法调查研究手册』, 上海教育出版社.
- 刘丹青(2012), 『名词性短语的类型学研究』, 商务印书馆.
- 刘丹青(2014), 『刘丹青卷—著名中年语言学家自选集』, 上海教育出版社.
- 林连云编著(1985), 『萨拉语简志』, 民族出版社.

- 清格尔泰(1991), 『蒙古语语法』, 内蒙古人民出版社。
- 徐琳·木玉璋·盖兴之编著(1986), 『傣傣语简志』, 民族出版社。
- 许余龙(2002), 『对比语言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 宣德五·金祥元·赵习编著(1985), 『朝鲜语简志』, 民族出版社。
- 素南坚赞(1990), 『藏语敬语词结构类型探讨』, 『西藏研究』第1期。
- 孙宏开·胡增益·黄行(2007), 『中国的语言』, 商务印书馆。
- 沈家煊(2009), 『语言类型学的眼光』, 『语言文字应用』第三期。
- 扎西草(2013), 『基于信息处理的藏语敬语词研究』, 『西北民族大学学报』, 34卷, 西北民族大学。
- 赵杰(2000), 『从日语到维吾尔语--北方民族语言关系水平性研究』, 民族出版社。
- 赵相如·朱志宁编著(1985), 『维吾尔语简志』, 民族出版社。
- 张蓉兰(1987), 『拉祜语动词的语法范畴』, 『民族语文』, 第2期。
- 张蓉兰(1994), 『从古歌谣中的地名溯拉祜族先民迁徙路线』, 『民族语文』第4期。
- 张雨江(2007), 『拉祜语语法化研究』, 『民族语文』, 第2期。
-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丛书(修订本)卷1-卷6』, 民族出版社。
- Croft, William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 Comrie(伯纳德·科姆里,1988),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second edition)*, 沈家煊罗天华译(2010), 『语言共性和语言类型』, 北京大学出版社。
- E. V. 폴리파노프 저, 정광·허승철 역(2004), 『한국어와 알타이제어의 친족 관계』, 『한국어학』 24, 한국어학회, pp.355-378.
- Lindsay J. Whaley(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김기혁 역(2008), 『언어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소통.
- P. J. Hopper & E.C.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 松本克己(2006), 『世界言語への視座-歴史言語學と言語類型論』, 三省堂.

■ 국문초록

한국어와 중국 제어의 경어법 문법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

박성일

본 연구는 경어법을 논제로 하여, 중국의 여러 민족 언어에서 현존하는 경어법의 실현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서로 비교하여 기술했으며, 각 언어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분석했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포함하여 중국의 중국-티베트어족과 알타이어족에 속한 15개 언어를 조사 대상으로 했고, 경어법 실현방법의 유형을 어휘적, 파생적, 형태적, 통사적 방법으로 구분했다.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에 속하는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가 한국어와 함께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가 높았고, 같은 알타이어족의 몽골어파와 만주통구스어파의 문법화 정도는 낮았다. 중국-티베트어족의 언어들은 주로 어휘적 방법의 경어법이 실현되었고 문법화 정도가 보편적으로 낮았다.

[주제어] 언어유형론, 경어법, 문법화, 알타이어족, 중국-티베트어족, 중국, 한국어, 중국어

■ Abstract

Grammaticalization of the Honorific System in Korean and Various Ethnic Languages in China

– a Comparative Research –

Piao, Cheng-ri

Focusing on the honorific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realizing the honorific systems present in various ethnic languages in China and described them by comparing each other from the linguistic typological perspective and analyzed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each language honorific system. More specifically 15 Altaic and Sino-Tibetan languages in China (including Korean and Chinese) were surveyed; the types of honorific system realization methods were divided into lexical, consequenti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methods. The degree of the honorific system's grammaticaliz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at, Uighur, Kazak, Kirgiz, and Salar belonging to Altaic languages Turkish Group showed the higher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the honorific system with Korean.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Mongolian Group and Manchu-Tungusic Language Group in the same Altaic languages was lower. For Sino-Tibetan languages, the honorific system of lexical methods was mainly realized and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was universally low.

[key words] Linguistic typology, honorific system, grammaticalization, Altaic languages, Sino-Tibetan languages, China, Korean, Chinese